

##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당대회 이후 권력구조와 정책내용

충남대학교 이상빈

### I. 서론

중국의 정치체제는 공산당 1당지배체제하의 당-정국가(party-state system)체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1992년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공식 채택함에 따라 시장경제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신중국(新中國)이후 성립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1978년 중국 공산당(中共) 제11차 3중전회(1978년 12월 18일~22일)의 결정에 따라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대한 점진적 개혁의 주 내용은 지방 분권화와 시장화 개혁을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을 가져왔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구소련의 급진적 개혁(Bing Bang)과는 달리 점진적 개혁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중국은 1978년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연평균 10%의 GDP 성장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의 추진은 중국의 지역불균형발전과 지역격차의 확대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크게 나타났다. 즉 중국은 특히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되는 지역간 불균형 발전문제가 크게 확대되면서, 이를 통해 계층간, 도·농간 소득격차의 문제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장쩌민(江澤民) 중심의 집단지도체제하의 중국 지도부는 선(先)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을 중시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후진타오(胡錦濤)를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의 등장 이후 중국의 정책은 개혁을 중시하면서 부의 균등한 분배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후진타오체제는 부정부패의 소지가 높은 불투명한 정책<sup>1)</sup>은 배제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적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소외지역과 계층에 대한 균형정책을 구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후진타오체제의 집권 1기 동안에는 장쩌민의 영향력에 벗어나 독자적인 체

---

1) 장쩌민체제 하에서는, 예를 들어, 인맥을 중심으로 하여 인허가사항의 묵과하는 일종의 정책적 비리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제를 구축하는데 일단 성공하였으나, 여전히 지역간, 계층간, 도·농간 격차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또한 개발도상국가로서 중국은 장래에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2차 제조업산업 중심의 경제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한 단계 개선시켜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었다. 따라서 후진타오체제는 최첨단과학기술산업과 첨단과학기술 산업집적지의 육성을 중요한 산업정책적 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게다가 후진타오의 집권 1기 체제에서는 장쩌민의 세력으로 분류되는 쩌칭홍(曾慶紅, 국가부주석), 짜칭린(費慶林, 정치협상회의주석)과 같은 인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제17차 당대회에서는 후진타오의 집권 2기 집단지도체제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쏠리었던 것이다. 또한 17차 당대회를 통해 그간의 중국 경제가 성장위주로 내 달으면서 나타난 사회적 이슈들이 어떻게 논의될 것이고, 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잡힐 것인가에 큰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크게 확대된 지역격차의 문제를 중심으로 제17차 당대회의 의미와 정부의 정책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성장

중국은 신중국(新中國)이후 성립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1978년 중국 공산당(中共) 제11차 3중전회(1978년 12월 18일~22일)의 결정에 따라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한마디로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get rich first, 先富論)에 입각한 ‘동부연해지역 우선 발전전략(coastal development strategy)’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의 스탠포드대학 교수 치엔 잉이(Qian Yingyi)는 이러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는 중국의 나아가야 할 새로운 체제가 무엇인지 분명한 방향이 없었고, “돌다리 두드리며 강 건너기(crossing the river by touching stone, 摸着石頭過河)”식의 실험적 추진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Qian Yingyi, 1999: 10).

지금까지 중국의 개혁과정의 큰 줄기를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1978-84년을 1단계로, 1984-91년을 2단계로, 그리고 1992년과 1994년에 있었던 개혁이후 현재까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제1단계의 개혁은 주로 농촌과 재정체제의 개혁 인데, 특히 1984년에 가정을 기본단위로 한 가정연산(家庭聯產) 청부책임제의 실시는 농민생산의 적극성을 크게 제고시키면서 향진기업(鄉鎮企業)<sup>2)</sup>과 도시의 비국유 경제의 대대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제2단계인 1984-91년의 기간에 중국은 국유 공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혁을 실시하면서, 이 때 사회주의 계획체제와 기업체제를 개혁하고자 하였다(薛暮橋, 1996: 383). 경제개혁의 제3단계인 1992년부터는 중국 공산당(中共) 제14차 대회에서 통과한 ‘사회주의 시장경제(社會主義 市場經濟)’의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 또한

2) 주로 중국 농촌의 소도시에 기반을 두면서 노동 집약적인 2차 가공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일컬으며, 기업의 소유형식은 개인 혹은 집체소유인 형태인 개인소유 기업과 집체소유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4년 분세제(分稅制)를 실시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의 경제관계의 제도화된 과정을 겪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개혁을 통해 나타나는 중국의 경제 성장전략은 국민총생산량의 증가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과거 마오시기의 중국은 '선진국 추월전략'을 실시하면서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꾀하였는데, 개혁개방 이후에는 성장극 혹은 성장축 등의 개념이 지역발전에 적용되어 역시 요소투입형 발전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중국의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분권화 정책에 힘입어 관할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의 총산출량의 꾸준한 증가를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역간의 불균형한 발전이 가속화되는데, 예를 들어, 중국의 현대식 공업이 일부 핵심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격차의 심화는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 Ⅲ. 지역불균형발전과 지역격차

#### 1. 불균형발전과 지역격차의 문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선호에 따라 동부 연해 지역에는 심천(深圳), 주해(珠海), 산두(汕頭)와 하문(廈門) 등의 경제특구, 14개 개방도시와 경제기술개발구, 그리고 주요 삼각주지역(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의 경제개발구와 해남성(海南省) 경제특구 등을 조성하였다.<sup>3)</sup>

이러한 중국 중앙정부의 우대정책은 자연히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이 산업발전 형태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예를 들어, 동부 연해지역은 경공업비중이 서부 지역에 비해 높고, 반면에 중·서부지역은 낙후된 농업과 중공업 위주의 이중구조 형태를 나타냈던 것이다(<표 1> 참조).

<표 1> 동·서부지역의 공업구조 변화 현황

(단위: %)

|    | 경, 중공업의 공업총생산치 점유 비율 |      |       |      |       |      |
|----|----------------------|------|-------|------|-------|------|
|    | 1978년                |      | 1990년 |      | 1993년 |      |
|    | 경공업                  | 중공업  | 경공업   | 중공업  | 경공업   | 중공업  |
| 동부 | 49.1                 | 50.9 | 54.2  | 45.8 | 44.4  | 55.6 |
| 서부 | 38.5                 | 61.5 | 39.2  | 60.8 | 31.1  | 68.9 |
| 전국 | 43.1                 | 56.9 | 49.4  | 50.6 | 44.0  | 56.0 |

자료: 「經濟體制改革」, 1996年 第5期, p. 87.

3) 14개 개방도시로는 대련, 천진, 진황도, 연태, 청도, 연운항, 남통, 영포, 온주, 복주, 광주, 심강과 북해연해 항구 도시이다. 그리고 1985년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閩南廈(門), 漳(州), 泉(州) 삼각지대는 연해경제개발구로 정해졌으며, 요녕과 산둥반도로 확대되었다.

중국 대륙을 지리적인 관점에서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공업 생산액 시장 점유율을 중심으로 기업 형태별 분포도를 보면 <표 2>와 같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동북 3성과 중서부 내륙지역에, 향진기업은 발해(渤海)와 화동지역(華東地域)에, 외자기업은 화남지역(華南地域)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지역별 기업 형태 공업 생산액 시장 점유율(2000년)

|      | 중부내륙지역<br>(산서, 섬서,<br>귀주 등) | 서부내륙지역<br>(사천, 칭해,<br>티베트 등) | 동북 3성<br>(흑룡강, 길림,<br>요녕) | 발해지역<br>(북경, 하북<br>천진 등) | 화동지역<br>(상해, 강소<br>등) | 화남지역<br>(광둥, 복건<br>등) |
|------|-----------------------------|------------------------------|---------------------------|--------------------------|-----------------------|-----------------------|
| 국유기업 | 64.4%                       | 75.2%                        | 75.9%                     | 47.6%                    | 32.8%                 | 31.9%                 |
| 집체기업 | 18.3%                       | 8.0%                         | 6.7%                      | 23.2%                    | 16.6%                 | 10.4%                 |
| 외자기업 | 8.7%                        | 7.0%                         | 15.0%                     | 22.4%                    | 32.2%                 | 55.8%                 |
| 기타   | 8.7%                        | 9.8%                         | 2.4%                      | 6.9%                     | 18.4%                 | 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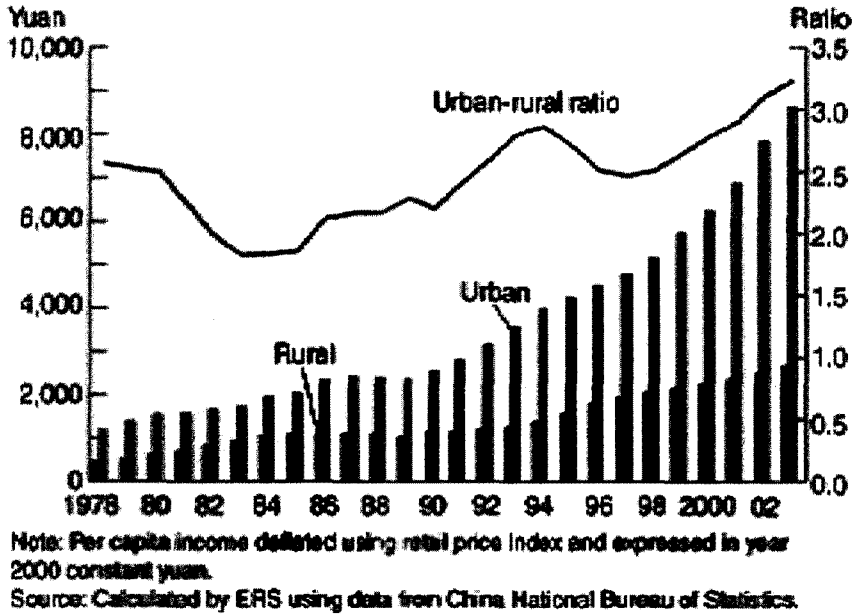
자료: 國家統計局編, 「중국통계적요」, 「중국통계연감」, 國家統計出版社, 2000.

또한 14대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추진결정에 따른 시장의 활성화정책은 각 지역의 경제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적인 시장화의 요인은 향진기업이나 외자기업이 동부지역에 편중되어 발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부분 중소기업 규모인 향진기업은 특히 동부 연해지역의 농촌 공업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함으로써 동부지역의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동부와 중·서부 내륙지역간의 성장격차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부 연해지역에서 노동집약적인 2차 가공 제조업 및 향진기업의 발전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중국으로서는 앞으로도 산업구조의 발전 및 기술의 진전, 경쟁력의 향상을 통하여 8%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사실 중국은 동부 연해지역의 노동집약적인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향진기업(鄉鎮企業)의 발전이 중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산업 및 산업구조의 문제 등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중국의 개혁개방은 그 추진과정 속에서 역동적이면서 근본적인 제도적 변화를 경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사회전반을 걸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계층간의 소득 격차, 지역 격차 및 지방 보호주의의 대두, 소수민족 갈등과 농민 소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다. 케네스 켅(Kenneth Keng)은 1990년대 중국의 주민소득 격차는 미국과 매우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특히 중국의 지역 격차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수준에 해당되는 심각한 불균형적 경제성장임을 지적하였다(Kenneth Keng, 2006)

### China is facing a growing gap between rural and urban income



<그림 1> 중국의 도·농간의 소득격차

한편, 티엔 샤오원(Tian Xiaowen)은 중국 지역격차 현상이 세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1인당 GDP의 생산지표와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소득과 도시 주민의 1인당 총소득, 농촌 주민과 도시 주민의 1인당 소비를 중심으로 한 생활지표를 모두 적용하여 변이계수와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활용한 그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지역격차의 양상은 첫째, 성간의 산출량(output) 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며, 둘째, 성간 생활수준(livelihood) 격차는 확대되고 있고, 셋째, 연해와 내륙 성(省)간의, 특히 광둥, 강소, 절강, 복건, 산둥의 연해지역 성과 내륙지역 성간의 산출량과 생활수준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지역격차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첫째, 지역입지 우위(location advantage), 둘째, 후발 우위(backward advantage), 셋째, 시장화 정도의 효과(the influence of market orientation), 넷째, 지역우대정책(the special policy treatment)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지역격차 문제는 자연 지리적인 한계의 원인과 그리고 지역격차의 초기 수준 및 경제발전 수준, 그리고 정책과 밀접한 상관관계에서 파생되어 나왔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중국 학자들은 '차세대 정부'의 정책은 중국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재정보조 및 공공투자 정책을 통해 낙후 지역의 내생적 발전의 동력을 찾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해 왔다(胡鞍鋼, 王紹光, 康曉光, 1995).

## 2. 중국의 균형발전전략과 지역혁신

2003년 10월에 들어선 후진타오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는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서부대개발 사업과 동북공정의 추진, 그리고 국유 지주 산업의 발전으로 지역 경제발전을 이끌어 간다는 전통적 사고와 53개 국가급 ‘첨단과학기술 산업개발구’의 정책적 육성이라는 과학기술의 진흥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산업의 특성화나 ‘첨단과학기술산업지구(高新區)’의 조성을 통한 첨단기술의 육성정책이 중요한 정책적 요소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요소로 인해 중국 지역에서는 특징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의 신산업지구가 발전되었다.

첫째, 북경시 중관촌으로 대표되는 ‘첨단과학기술산업개발구’와 같은 첨단산업지구가 발전되면서 이러한 유형의 개발지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첨단과학기술산업지구’는 기초 인프라 구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첨단기술의 서식지(habitat)로서의 역할과 기업창업으로 연계, 시장 환경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업간에 세분화된 분업체계를 갖춘 첨단산업개발구의 모습은 아직 갖추고 있지는 않다.

둘째, 기존의 경제특구와 발전지역을 중심으로 수출가공구 및 특수 가공업지역 산업단지가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광둥의 동관지역으로 대표되는 ‘수출가공구’지역의 형성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의 정책적 우대를 통해 비록 이 지역은 지역경제발전의 빠른 성장을 가져왔으나, 전통산업지구로서 부가가치가 낮고, 지식의 확산이 제한되어 있으며, 선진발전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시장잠식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광둥성 동관(東莞)과 같은 지역은 예를 들어,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홍콩을 이용한 ‘보상무역정책(三來一補)’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추구하였으며, 특히 이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을 개선하여 홍콩으로부터 많은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초기적인 자본을 축적시켜 왔다(朱佳佳, 2002: ). 또한 동관정부는 줄곧 외국인 자본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하여금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산업고도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동관은 제조가공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산업구조가 전자통신제조업 위주로 전환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국제 가공제조업기지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한편, 절강성 온주지역으로 대표되는 특수 가공업 지역이 발전하였는데, 현재 이 지역의 특수 산업단지의 발전은 절강성의 현(縣)급 및 향진(鄉鎮) 지방정부의 산업 육성정책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지역 산업단지의 발전이 세계 산업단지 발전의 추세와 가장 유사한 발전의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 정부의 지역별 산업특성화.

셋째, 장강을 중심으로 장강 경제벨트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장강 경제벨트는 상해(국제금융중심)에서 소주-곤산-무석시(국제적 디지털산업단지), 합비-무한-남경-장사(자동차 및 중공업 생산기지), 중경-성도(서부대개발 중심지) 잇는 지역으

로 장강 경제벨트의 경제규모는 중국 전체 GDP의 25-30%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약 40%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지역에는 국가급 과학기술 산업 단지의 70%가 이 장강 주변에 몰려 있고, 역시 반도체 IT산업의 중심지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서부대개발 사업과 동북공정사업의 추진으로 국가급 발전 프로젝트가 진행 되어오고 있다. 특히 서부대개발은 동서의 횡적연합을 도모하면서 서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동북3성 지역은 동북공정사업으로 중화학공업부분의 국유부분기업의 개혁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이다.

## IV. 17차 당대회의 의미와 정부 정책내용

### 1. 17차 당대회를 통한 권력구조와 의미

중국의 최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가 지난 10월 15일 개최되어 21일 폐막되고, 이어서 22일 개최된 17기 제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제17기 1중전회)에서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고 나갈 핵심지도부가 선출되었다. 이번 17대에서 새로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선출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후진타오 이후를 이끌 5세대 지도자의 핵심이 누가 될 것인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다.

결국, 요녕성 당서기를 지냈던 리커창(李克强)과 함께 상해 당서기 출신의 시진핑(習近平), 그리고 허귀창(賀國強)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저우융캉(周永康) 정법위원회 서기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상무위원으로 함께 진입함으로써 후계구도가 명확치 않게 되었다. 중요한 점은 후진타오 현 주석이 17차 당대회에 장쩌민 전 주석과 함께 참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하이방 출신으로 분류되었던 인물들이 물러나고 후진타오 세력하의 인물들로 지도부를 구성할 것이라는 그간의 예상과 달리 후진타오체제 집권2기에서는 화합과 포용을 중심으로 '강한 중국' 건설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표 3>참조).

<표 3>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중앙위원회 명단(1945년 제7차 ~ 2003년 제16차)

| 회의차수  | 개회시기                  | 개회지점 | 대표숫자 | 전국당원수  | 중앙위원회명단  |
|-------|-----------------------|------|------|--------|--|
| 제 7차  | 1945. 4. 23 - 6. 11   | 연안   | 855  | 121만명  | 중앙위원회주석: 모택동<br>중앙서기처서기: 모택동, 주덕, 유소기, 주은래, 임필시  |
| 제 8차  | 1956. 9. 15 - 9. 27   | 북경   | 1123 | 1073만명 | 중앙위원회주석: 모택동<br>중앙위원회 부주석: 유소기, 주은래, 주덕, 진운  |
| 제 9차  | 1969. 4. 1 - 4. 24    | 북경   | 1512 | 2200만명 | 중앙위원회주석: 모택동<br>중앙위원회부주석: 임표<br>정치국상무위원: 모택동, 임표, 진백달, 주은래, 강생   |
| 제 10차 | 1973. 8. 24 - 8. 28   | 북경   | 1249 | 2800만명 | 중앙위원회주석: 모택동<br>중앙위원회부주석: 주은래, 왕홍문, 강생, 엄경명, 이덕생   |
| 제 11차 | 1977. 8. 12 - 8. 18   | 북경   | 1510 | 3500만명 | 중앙위원회주석: 화국봉<br>중앙위원회부주석: 엄경명, 등소평, 이선념, 왕동홍   |
| 제 12차 | 1982. 9. 1 - 9. 11    | 북경   | 1790 | 3965만명 | 중앙위원회주석: 호요방<br>중앙정치국상무위원: 호요방, 엄경명, 등소평, 조자양, 이선념, 진운<br>중앙군사위원회주석: 등소평<br>중앙고문위원회주석: 등소평<br>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진운 |
| 제 13차 | 1987. 10. 25 - 11. 1  | 북경   | 1790 | 4200만명 | 중앙위원회 총서기: 조자양<br>중앙정치국상무위원: 조자양, 이봉, 교석, 호계립, 요의림<br>중앙군사위원회주석: 등소평<br>중앙구문위원회주석: 진운<br>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교석      |
| 제 14차 | 1992. 10. 25 - 11. 1  | 북경   | 1790 | 4200만명 | 중앙위원회 총서기: 강택민<br>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강택민, 이봉, 교석, 이서환, 주용기, 유화형, 호금도<br>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강택민<br>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위건행          |
| 제 15차 | 1997. 9. 12 - 9. 19   | 북경   | 2048 | 6100만  | 중앙위원회 총서기: 강택민<br>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강택민, 이봉, 주용기, 이서환, 호금도, 위건행, 마남형<br>중앙군사위원회주석: 강택민<br>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위건행          |
| 제 16차 | 2003. 10. 11 - 10. 18 | 북경   | 2097 | 6600만  | 중앙위원회 총서기: 호금도<br>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호금도, 온가보, 우병국, 가경림, 쑹경홍, 황국, 우관평, 이강춘, 리간<br>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강택민 /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우관평 |

아래는 이번 17기 제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핵심지도부 명단이다.

중앙정치국 위원: 습근평, 왕강, 왕락천, 왕조국, 왕기산, 회량옥(회족), 류기, 류운산, 류연동(여), 이장춘, 이극강, 이원조, 오방국, 왕양, 장고려, 장덕강, 주영강, 호금도, 유정성, 하국강, 가경림, 서재후, 궈백웅, 온가보, 박희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호금도, 오방국, 온가보, 가경림, 이장춘, 습근평, 이극강, 하국강, 주영강

중앙위원회 총서기: 호금도

중앙서기처 서기: 습근평, 류운산, 이원조, 하용, 령계획, 왕호녕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호금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궈백웅, 서재후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양광렬, 진병덕, 이계내, 요석룡, 상만전, 정지원, 오승리, 허기량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하국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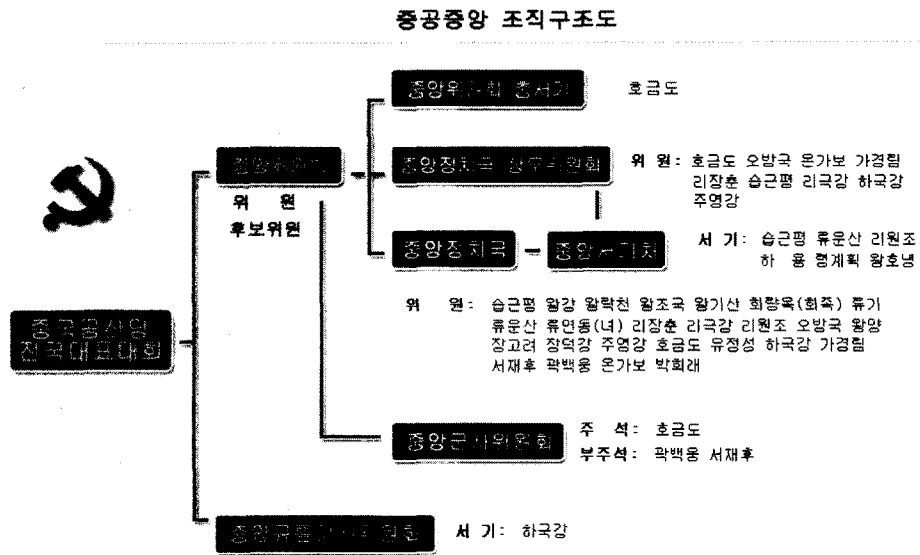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하용, 장혜신 마문(여), 손충동, 간이승, 장의, 황수현, 이옥빈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간이승, 마문(여), 왕위, 영호안, 손충동, 두학방(여), 이옥빈, 오옥량, 오옥평(여), 구학강, 하용, 장군, 장의, 장기남, 장혜신,



굴만상, 하국강, 황수현, 채계화(신화통신).

요컨대, 이번 후진타오 중심의 집단지도부체제는 후주석 계열 즉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계열과 장 전 주석의 상하이방(上海幫) 계열, 그리고 쟙칭홍(曾慶紅) 부주석을 필두로 한 태자당(太子黨)이 권력을 분점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후 주석 계열로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신임 리커창(李克強)을 들 수 있고, 쟙칭홍 계열로는 새로 뽑힌 시진핑과 허귀창(賀國強)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저우융캉(周永康) 정법위 서기, 장쩌민 전 주석 계열로는 우방귀(吳邦國), 자칭린(賈慶林), 리창춘(李長春) 등 연임된 상무위원들이 있다(이태환, 2007). 그러나 후진타오체제의 집권 2기는 후 주석의 리더하에 안정적인 권력구도를 형성할 것이며, 특히 이번 당대회에서 후 주석의 ‘과학적 발전론’이 당헌법과 당장(當章)에 수정안으로서 삼입되었다는 점이 후 주석의 안정적인 권력구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림 2>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구조도

자료: <http://korea.cpc.people.com.cn/71167/106123/6427560.html>(검색일: 2007년 11월 8일)

## 2. 정부의 정책내용

후진타오 주석은 10월 15일 당대회의 첫 날 보고에서 중국의 경제력의 대폭 향상되었으며 경제가 안정적으로 쾌속한 발전을 유지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사회주의 신(新) 농촌건설이 착실하게 추진되었고, 지역간의 발전에 있어서 협력이 강화되어 지역균형발전전략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의 보고에서 혁신형 국가건설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자주적 혁신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제10차 5

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으며, 현재 제11차 5개년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후진타오체제의 집권 2기 정부의 정책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대회의 보고에서 밝힌 후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과학적 발전관'은 먼저 현재 중국의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2차 산업의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금융, 서비스 등 3차 산업의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집약적 산업중심에 자본,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발전 방식도 전환해야 한다. 또한 중국 생태 및 환경오염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과 과학기술과 산업과의 연계의 필요성이 부상되면서 이러한 과제에 직면하여 후 주석으로 하여금 과학적 발전론을 강조하게 되었다. 즉 과학적 발전관은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에 탈피해서 빈부격차, 부정부패, 환경오염 등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루어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태환, 2007).

또한 과학적 발전관은 현재의 중국 발전과정에서 놓인 특수한 상황에 기초해서 혁신적 국가발전, 발전방식 혹은 발전모델의 전환, 발전규율의 강조 등을 통해 글로벌시대에 요구되는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를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과학적 발전관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기치 아래 강조되었던 덩샤오핑(등소평)이론과 장 진 주석의 '세가지 대표론'의 사상적 지도와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중국 사회주의 발전을 위해서 과학적 발전관을 실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향후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담겨있는 후 주석의 보고 내용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적 발전관은 발전에 관한 당의 제3세대 중앙지도집단의 중요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산업구조, 성장방식, 소비모델을 기본적으로 형성해야 하면서 생태환경 보호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경제발전모델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주적 혁신능력을 높여 혁신형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의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요강을 실시하고, 국가혁신체계를 구축, 산학연이 결합된 기술혁신체계 구축, 과학기술성과가 상업화로 이루어지도록 촉진한다는 것이다. 넷째,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확고하게 추진하며 사회주의 문화발전 및 번영을 추구한다. 특히 사회주의민주정치의 제도화(인민대표제도의 기능 강화, 기초민주주의 촉진, 행정체제개혁을 통한 서비형 정부구축 등), 규범화, 절차화를 추진함으로써 정치제도와 법률제도를 통해 당과 국가의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섯째, 민생개선 위주의 사회주의 건설을 가속화한다. 다섯째, 국방 및 군의 현대화를 달성하고, 1국가 2체제(一國兩制)을 통해 대만과 중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이다.